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정 희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무의식에 내재된 불분명한 형상에 관한 연구

- 본인작품을 중심으로 -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안 민 환

무의식에 내재된 불분명한 형상에 관한 연구

- 본인작품을 중심으로 -

김정희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안 민 환

인 준 서

안민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인간은 살아가는데 수많은 상황 속에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한 자신의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뜬금없이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고 별것 아닌 일에도 감당하지 못할 화로 솟구쳐 오르거나 갑자기 우울해질 때가 있는 등 자신도 모르게 알 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다. 이것은 주체로서의 자아가 불안정한 상태이며 스스로도 제어 할 수 없는 내면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런 상황들의 골이 깊어진다면 우울증이나 조울증, 폭력성과 같은 정신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치명적인 상황을 낳을 수도 있다. 위 내용은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감정으로 항상 의식의 변두리에서만 살고 있는듯하지만 인간의 동인(動因)은 무의식에서부터 시발점이 되고 있음을 말하고자 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다양한 내면의 흐름들을 스스로 억제하고 역으로 튀어나오는 돌발행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한 고찰을 하였으며 이것을 ‘나를 움직이게 하는 무엇’이라는 주제를 만들고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2015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진행했던 작품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청구전에 발표 하였으며 내면의 흐름과 내적동인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산물을 표현하는 과정을 이끌어 내는데 목적이 있다.

제 I장 서론에서는 연구자의 작품 방향과 목적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II장 본론의 첫 번째, 작품의 형성배경에서는 연구자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예술에 대한 고찰로 본인이 지향하던 미술에 갈증을 느끼고 표현과 사유(思惟)방식의 전환점이 되는 과정을 서술했다. 두 번째, 지그문트 프로이트 Sigmund Freud의 정신분석학을 토대로 숨겨진 본성에 대한 이론을 연구하였다. 세 번째, 근대미술에서 예술작가들의 의식변화와 세계1.2차 대전에서 빚어진 내적갈등을 표현한 선형작가를 연구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구자의 작품을 위주로 물성이 약한 재료에서 오는 조형적 특징을 표현하는 태도

를 분석하고 작품에 내제된 의미, 제작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III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작업방향을 제시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작품의 형성 배경	3
1) 이드Id, 초자아Superego, 자아Ego	3
2) 리비도Libido(성 에너지)Thanatos(공격성, 공격에너지)	4
3) 연구자 essay를 통한 무의식 세계의 접근방식	5
2. 작품 표현방법	7
1) 예술작품으로써의 그로테스크grotesque	7
2) 심연(深淵)으로부터의 그로테스크	9
3) 해학적 그로테스크와 테크니컬technical한 접근	12
3. 작품 분석	15
III. 결 론	38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1] 나를 움직이게 하는 무엇, 우레탄폼, 라텍스, 가변설치 2015	17
[작품2] 나를 이끌어 주는 무엇I, 아이소핑크, 100x190x16cm, 2015	19
[작품3] 나를 이끌어 주는 무엇II, 아이소핑크, 100x190x16cm, 2015	19
[작품4] 레테의 강을 건너지 못한 자, 아이소핑크, 가변설치, 2016	21
[작품5] 옥동의 부산물I, 우레탄폼, 시바틀, 62x40cm, 2016	23
[작품6] 옥동의 부산물II, 우레탄폼, 시바틀, 40x62cm, 2016	23
[작품7] 옥동의 부산물III, 우레탄폼, 시바틀, 라텍스, 38x28x15cm, 2016	25
[작품8] 공(空)과 옥동의 이율배반적인 관계, 라텍스, 가변설치, 2016	27
[작품9] 간극의 부산물, 라텍스, oil painting, 우레탄폼, 가변설치, 2016	29
[작품10] 부산물의부산물, 라텍스, 70x120cm, 2016	31
[작품11] 자화상I. 라텍스, 70x120cm, 2016	33
[작품12] 자화상II, 라텍스, 70x110cm, 2016	33
[작품13] 자화상III, 라텍스, 60x90cm, 2016	33
[작품14] 포장I, 라텍스, 70x120cm, 2016	35
[작품15] 포장II 120x70cm	35
[작품16]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무엇	37

I. 서 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 세계에는 성욕과 폭력성으로 둔갑한 무궁무진한 힘이 있다. 그 힘은 대부분 잠재되어있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튀어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무의식 세계의 에너지들을 억압시키고 있으며 표출되어서는 안되는 하나의 금기로 여겨지고 있다. 연구자는 인간의 무의식 에너지들을 내적동인의 중요한 요소로 손꼽고 있으며 다양한 재료들을 통해 정형화 시킬 수 없는 욕동의 흐름들을 표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로 이 힘들은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¹⁾의 정신분석학을 토대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드Id, 초자아Superego, 자아Ego중에서 이드에 속한 리비도libido(폭력성, 죽음)와 타나토스Thanatos(성 에너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한다.

둘째, 근대에 이르러 과학의 발달과 그로인한 문화적 전복(顛覆)을 토대로 미술을 대하던 인간사상(人間思想)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점을 기술하고자했다. 이를 위해 19세기 말 카메라의 등장과 1.2차 세계대전의 문화적 영향을 살펴보았고 그로인해 기존의 미학적 범주를 탈피하고 내면의 심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자한 그로테스크grotesque의 미학적 접근과 어원을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자의 작업과 일정부분 겹쳐지는 선행작가 지슬라브 백진스키 Zdzislaw Beksinski와 폴케르트 드 용Folkert de jong의 내적의식의 접근방식

1)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는 마르크스, 니체 등과 함께 현대의 3대 혁명적 사상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마르크스는 종래의 관념론을 해체하고 유물변증법적 기초에서 인간의 정치·경제적 평등을 부르짖으면서 과학적 사회주의의 건설을 촉구했다. 니체는 예술가·철학자의 입장에서 종래의 합리주의적 허무주의를 타파하고 힘에의 의지를 근본으로 창조적인 초인(위버멘슈)상을 구축하고자 했다. 그런가 하면 프로이트는 의식 일변도의 심리학을 해체하고 종래에는 은폐되었던 무의식의 세계를 들추어냄으로써 의식과 무의식의 균형을 추구하고 건강한 정신 상태를 되찾으려고 노력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과 그로테스크함이 가미된 테크니컬한technical 방식에 대해서 연구자의 작품과 비교분석 하고자한다.

셋째, 연구자의 작품은 크게 세 가지 재료로 라텍스, 우레탄폼, 아이소핑크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재료적 특성으로는 라텍스의 텐션과 우레탄폼의 부풀려짐, 아이소핑크에 열을 가했을 때 쪼그라드는 효과를 이용하였으며 이를 인간심리에 반영 하였다. 또한 기존 조각방식에서 벗어나 손기술에서 묻어나오는 방식보단 재료적 특징을 이용한 비정형성과 유연성에 기반을 두고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인간이 행동하게 되는 내적 동기를 탐색하는 작품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심층부를 한층 더 깊게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II. 본 론

1. 작품의 형성배경

1) 이드Id, 초자아Superego, 자아Ego

프로이트의 구조 이론은 인간의 마음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그들의 이름은 이드(Id), 초자아(Superego), 자아(Ego)이다. 간략하게 말하면 이드는 욕망의 대변자이다. 자아는 중재자며 초자아는 자아이상(ego idal),도덕, 윤리, 양심의 대변자이다. 이드는 욕구를 주장하고, 초자아는 금지된 일을 못하게 막아서거나 이상을 추구하고, 자아는 타협점을 찾는다.

이드는 ‘미지의 힘인 그것’이라는 뜻이다. 프로이트가 독일어로 ‘그것das Es’이라고 한 것을 프로이트 원전을 영문으로 번역한 제임스스트레치James Strachey가 라틴어에서 단어를 빌려와 ‘이드’라고 하였다. 프로이트는 이드를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 성적이거나 공격적인 소망 덩어리로 충동적인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였다. 원초적이고 이기적이며 이드를 움직이는 힘은 쾌락의 원칙이다. 이드가 강해지면 마음의 세계는 비상이 걸린다. 술이나 약으로 이드의 힘이 세지면 인간은 이성이 아닌 본능적 충동에 의해 움직이게 된다.²⁾

초자아는 독일어로 das Uber-Ich, ‘나의 위’라는 뜻이다. 초자아의 역할은 나를 위해서 지켜보는 것으로 초자아는 이드 안의 욕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 초자아는 태어난 후 부모와 사회로부터 배운 것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초자아는 특히 아버지의 모습이다. 초자아 형성의 밑거름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³⁾다. 초자아는 자신을 관찰하고 비판

2) 정도연 「프로이트의 의자」, 웅진지식하우스, p. 30

3)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Oedipus complex

소포클레스Sophocles가 쓴 그리스 비극<오이디푸스 왕>에 나오는 오이디푸스는 테베 Thebes의 왕 라이오스Laius와 왕비 이오카스테Iocasta의 아들로 태어난다. 크면 아버지를 죽일 것이라는 예언 때문에 오이디푸스를 죽이라는 왕명을 받았지만 어머니의 부탁으로 몰래 버려지고, 양치기에 의해 멀리 코린트Corinth로 옮겨가 코린트 왕의 아들로 키워진다. 성

하고 말한다. 자신이 초자아의 눈에 비추어 도덕적이지 않으면 죄책감을, 추구하는 가치나 이상에 못 미치면 수치감을 느끼게 된다.⁴⁾

자아는 독일어로 ‘나(das Ich)’이다. 자아는 이드, 초자아, 현실 사이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협상을 주도한다. 원하는 것은 무조건 이루려는 이드와 도덕적 잣대를 제시하는 초자아 그리고 냉엄한 현실 사이에서 자아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이런 타협점을 이끌어 내는 자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힘 있는 자아는 고통스러운 일을 견딜 수 있다.⁵⁾

2) 리비도Libido(성 에너지)Thanatos(공격성, 공격적 에너지)

프로이트는 인간을 움직이는 두 가지 욕동(본능적 욕구의 움직임)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삶의 욕동인 리비도Libido(성 에너지)와 죽음의 욕동인 타나토스Thanatos(공격성, 공격적 에너지)다.

여기서 보여주는 공격성과 성 에너지에 대해서 낯설게 느껴 질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의 행동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에너지들은 우리들과 상당히 밀접하게 와 닿아 있음을 알게 된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성의 연예인이나 패션모델은 보통 사람들에게겐 부족한 외모나 몸매를 가진 이상향에 가까운 모습이다. 그 모습에 매혹되어 ‘팬fan’이생기고 또 다른 군집을 형성하며 나머지 군집들과 서로 헐뜯고 싸우기까지 시작한다⁶⁾. 그리고 ‘S 라인은’도대체 무엇일까? 성적매력이 중요하지 않다면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서 몸을 가꾸는 행위는 단지 건강만을 위해서는 아닐 것이다. 공격성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이 없다면

장한 후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차지할 운명이라는 예언을 듣게 된 오이디푸스는 그 운명을 피하기 위해 코린트를 떠난다. 그러다가 테베로 가는길에서 자신의 친아버지인 라이오스를 만나게 되고 시비 끝에 그를 죽이게 된다. 그리고 나서 스피нк스Sphinx의 어려운 질문을 풀고 테베를 구한다. 테베의 왕이 된 오이디푸스는 친어머니인 왕비 이오키타와 결혼을 한다. 나라에 역병이 돌자 그 원인이 친아버지를 죽이고 친어머니와 결혼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고통에 못 이겨 자신의 눈을 찢러 장님이 되어 떠난다. 「네이버지식백과」

4) 정도연 「프로이트의 의자」, 웅진지식하우스, p. 31

5) 정도연 「프로이트의 의자」, 웅진지식하우스, p. 46

6) 성욕과 폭력성이 또 다른 형태로 이어지는 프로이트의 심리적 견해를 예로 서술하였다.

기원전부터 이어온 역사는 다시 썼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을 반복하면서 각종 무기들과 다양한 생산 체계들을 써내려 왔다. 그리고 권투, 레슬링, 격투기가 그 이론을 뒷받침 해준다. 공격성은 타인을 향한 것만은 아니다. 공격성은 자신을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動力)이다. 공격성이 너무 부족한 사람들은 매사에 의욕이 없고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된다. 하지만 그 두 가지의 성격이 반드시 드러나지는 않는다. 자세히 보면 사람들의 작은 행동과 눈빛에도 얼마든지 찾아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과의 대면에서 나오는 마찰이나 시비들도 공격성의 일부이며 지나가는 이성의 외모나 몸짓에 고개를 돌리는 것도 성욕의 일부이다.

인간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그 방향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성 에너지와 공격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무의식의 욕동에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다.⁷⁾

3) 연구자 essay를 통한 무의식 세계의 접근방식

수년 전부터 이어온 작업의 시작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부조리한 구조들을 해학적으로 표현(폐지 시리즈)하면서 부터이다. 하지만 그 작업세계는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유형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어떠한 표상에 따라가기에만 급급해 하고 있음을 느끼게 됐다. 갈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예술이란 무엇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뒤로 돌아가 스스로에 대해서 진실하게 지각(知覺)하고자 하였다. 주체

첫 번째 시도로 정체성을 찾아가는 자화상 시리즈로 출발 하였으며 본인의 얼굴, 몸을 그리고 만들어보는 등 표상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신체조건을 재구성하고 왜곡 시켰으며 더 나아가 표면적인 모습보다 내면의 모습에서 주체성을 찾아가는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면의 무의식을 탐구하게 되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오르거나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쾌락을 느끼고 때로는 한없이 나약해지고 무의미해

7) 정도연 「프로이트의 의자」, 응진지식하우스, p48

진다고 느끼는 것이 어디서 오는 건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불안정 했던 다양한 감정들을 ‘스스로를 움직이게 하는 무엇’의 내적동기(動機)에 직결되는 에너지로 판단을 세웠다. 그 ‘무엇’은 어릴 적 기억들을 되짚어 보면서 추리하기 시작 하였으며 틀에 갇힌 부조리한 사회규범을 직면할 때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되고 돌려서 말하거나 참아야 했던 불편한 기억들을 꺼냈다. 그런 감정들이 중첩되면서 결국 본인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분노와 폭력성 그리고 성 에너지들로 둔갑한 어떤 응어리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 응어리들은 프로이트가 언급했던 무의식속의 성욕과 폭력성에 직결됨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응용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 이 응어리들은 언제라도 나를 방어하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자아가 조금씩 확립되어 가면서부터는 타인에게의 공격이 아닌 본인 스스로를 공격하면서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엔진과도 같은 존재로 남았다. 그 엔진은 연구자의 삶의 원동력이자 에너지의 원천이며 모두가 쉽게 의식하지 못하는 내적 동인의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자의 내적고민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며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2. 작품표현방법

1) 예술작품으로써의 그로테스크 grotesque (1.2차 세계대전을 시작으로)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신을 중심으로 이어진 사상은 중세이후 신이 아닌 인간 중심사상으로 전환이 되었으며 미술계에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 19세기 이후 카메라가 등장함에 있어서 재현적인 미술의 가치는 급 하락하기 시작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한 전복은 그 후 작가들은 자기성찰과 주제성을 확립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통적인 작업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념과 재료들을 실험하는 하나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은 곧 현대미술로 이어지는 큰 전환점의 시기가 되었다.

지리적 여건을 봤을 때 수많은 나라가 붙어 있던 유럽은 수세기 동안 전쟁의 역사로 이루어진 국가들이다. 특히 자본주의의 초기부터 서구의 유럽 제국주의는 그 면모를 확실하게 드러냈으며 1.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그로인해 유럽 전역의 사람들은 피난을 가거나 무참히 살해되었다. 또한 유럽의 수 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건축물과 작품들이 치참하게 파괴되고 특히 나치로 인해 집단 강금과 학살을 받은 유대인은 전쟁이전 300만에 달하던 인구가 전쟁이후 4만 5천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인간의 무자비함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 당시에 활동했던 예술작가들은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인간의 제한적 힘을 뛰어넘는 내면의 충동이나 욕구, 그리고 비도덕적이고 추악한 실체의 인간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해체와 재결합을 통한 그로테스크(grotesque⁸⁾적인 작품들이 발표됐다. 연구자는 작가들의 작품에 반영되는 방법과 특성들을 파악함으로써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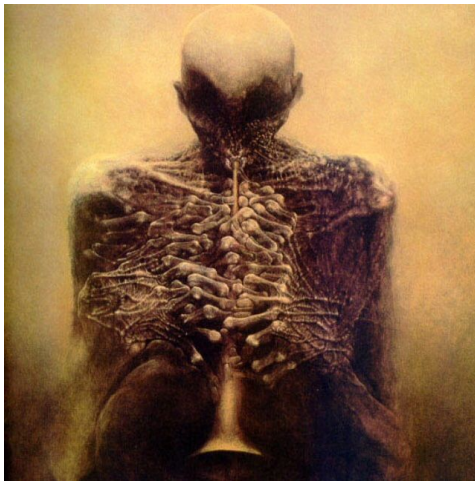
8) 그로테스크란 본래 그로테스코(grottesco)라는 이탈리아어로, 보통 그림이 어울리지 않는 장소를 장식하기 위한 색다른 장식품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오늘날엔 괴기스러운 것, 극도로 부자연스러운 것, 흉측하고 우스꽝스러운 것 등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15세기 말 고대 로마의 폐허가 발굴되었을 때 지하에 파묻혔던 건축물의 지하실이 동굴과 흡사했는데 그 벽 모양은 덩굴식물인 아라베스크에 공상의 생물, 괴상한 인간의 상, 꽃·과일·촛대 등을 복잡하게 결합시킨 것으로, 이후 그 기괴함이 사람들의 흥미를 끌며 그로테스키(grotteschi)라는 괴기취미의 유행을 낳았다. 그로테스크란 말은 여기서 시작돼 미술에서는 라파엘로, 판투리키오 등의 바티칸 성당 장식무늬나 루이 16세 시대의 고대 취미 등을 가리키다, 이후엔 예술 일반에 있어 '환상적인 괴기성'을 뜻하는 용어가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체성과 내면의 흐름이 담긴 그로테스크한 작품들을 위주로 연구 하였으며 작가들의 소개와 테크니컬technical한 방식에 대한 연구와 연구자의 작품을 비교 분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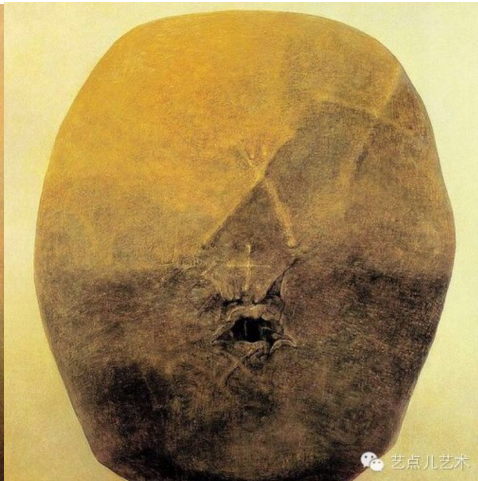
2) 심연(深淵)으로 부티의 그로테스크

지슬라브 백진스키 Zdzislaw Beksinski 1929-2005

1929년 폴란드에서 출생한 지슬라브 백진스키는 건축을 시작으로 생업을 이어왔다. 하지만 2차 대전 중에 폴란드에서 유대인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이 이어지고 가족들의 목숨마저 빼앗겼다. 그 후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작품을 통해 그의 내적 흐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1950~1960년대의 작품은 볼펜과 잉크를 사용한 것이 많은데, 주제가 매우 에로틱하고 생생하다. 피부의 파괴를 통해 뼈와 살이 분리되는, 신체가 분해되는 과정도 묘사하였다. 이러한 백진스키의 은유법은 대부분 삶의 단조로움을 표현한 것이며, 그가 나타낸 에로틱한 꿈과 상상력의 세계는 ‘환시 미술’이라는 독특한 장르를 구축하였다.



도판 1



도판 2

이 인체들은 과도히 변형된 모습이었다. 살점은 뼈에서 분리되었고 뼈는 손상된 피부를 관통하였다. 피부 또한 벗겨지고 있었다. 백진스키는 그 피부를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미줄처럼 묘사했다. 그래서 그 그림은 마치 뼈에 첨가된

독립적인 생물처럼 보였다. 아울러 부분적으로 노출되고 피부와 같이 있는 핏줄에도 같은 효과가 가미되었다. 그리고 그 핏줄들은 실들이 얽혀있는 것을 연상시켰다.⁹⁾



도판 3

백진스키의 반복적인 작품제작은 보기 거북한 그림들을 점차적으로 부드럽게 만듦과 계속해서 보여줌으로써 관중들에게 익숙하게 만들고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게 한다. 그의 그림을 계속해서 보면서 결국 사람들은 표출되는 외형을 은연중 잃어버린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중의 시선은 점점 미묘해지고 더 높고 깊게 관찰한다. 관중의 의식 속에 그 대상은 여러 해 동안 그림 안에 녹아 있어 그림의 한 부분이 되었기에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다.¹⁰⁾

백진스키는 자신의 작품에 제목을 붙이지 않았고 이해하려 들지 않기를 바랐

9) Dmochowski. 「BEKSINSKI」, API, 1991, p. 11

10) 이철호, 「에로티시즘의 미학」, 선비출판사, 1988,p. 18

다. 이것은 초현실주의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어떤 제약도 거부하는 예술이며 모든 창작은 무의식 속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한 무의식이 승화되지 않는 것을 표면화 시키는 것이며, 이것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반항적이고 성급한 충동을 실현하고자 할 때 부조리한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연 구자가 추구하는 내적동인이 겉으로 드러난 부산물을 표현하는 작업방향과 일부 일치하며 무의식 상태야말로 사물을 다른 형태로 볼 수 있음을 알게된다.

3) 해학적 그로테스크와 테크니컬technical한 접근

폴케르트 드용 folkert de jong 1973

조각가이자 설치 미술가인 폴케르트 드용folkert de jong은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yBa¹¹⁾원로작가이다. 그는 주로 건축이나 영화 산업에서 주로 쓰이는 부자재인 스티로폼, 폴리우텐과 같은 재료를 이용한 독창적인 미술작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해학적 그로테스크한 그의 작품은 공격성을 표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상대방부터 공격 받을 가능성을 줄이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도판 4

11) yBa란 'young British artists'의 약자로 1980년대 말 이후 나타난 영국의 젊은 미술가들을 지칭한다. 흔히, yBa그룹 혹은 yBa 군단으로 일컬어지는 이들은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마크 퀴ン(Marc Quinn), 채프먼 형제(Jake and Dinos Chapman), 게리 흄(Gary Hume), 트레이시 에민(Tracey Emin), 사라 루카스(Sarah Lucas), 더글러스 고든(Douglas Gordon), 이안 대번포트(Ian Davenport), 질리언 웨어링(Gillian Wearing), 레이첼 화이트리드(Rachel Whiteread), 제니 사빌(Jenny Saville), 개빈 터크(Gavin Turk), 크리스 오펀리(Chris Ofili), 샘 테일러우드(Sam Taylor-Wood) 등 현대미술의 주역들이다. 『네이버지식백과』

이것은 억압되어 사라질 뻔했던 공격성을 변장시킨 후에 의식으로 불러와서 표현 하는 것 인데 우리가 유머나 개그에 열광하는 이유는 공격성에 대한 대리 만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²⁾

그는 이러한 재료들을 사용하여 화학 산업, 석유 경제, 동시대 정치, 제 1,2차 세계대전, 공포 영화, 미술사 등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연출한다. 더 용이 소재로 하는 일련의 사건들은 과학의 남용, 환경문제, 정치적 불찰, 전쟁과 재난 등 인간의 '비도덕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이 실물 크기의 조각들은 거칠게 잘리거나 다듬어지지 않은 표면에 원색의 페인트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져 있다.¹³⁾



도판 5

더 용의 작품에서 보았듯이 일회성이나 단발성 뒤에 오는 나약한 재료가 대부

12) 정도연 「프로이트의 의자」, 웅진지식하우스, p55

13)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South Korea <http://southkorea-kr.nlembassy.org/news>

분이다. 이런 물성의 이해는 연구자의 작업 방식과 흡사함을 발견하였으며, 재료적 측면에서 날것을 추구하는 감성 또한 일정부분 겹쳐진다. 하지만 더 용의 구체적인 형상과는 달리 연구자는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어떠한 힘들에 관심을 갖고 인간 내부의 비형상적 에너지들과 연결되어 있는 차이점이 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아폴론적¹⁴⁾인 차이 인 것이다.

현대의 사고 속에서 그로테스크는 무한한 역할을 한다. 보편적인 표현방식을 벗어나 형이상학적 사고방식을 추구함으로써 기형과 무서움을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희극과 광대짓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서양 문화에서 특별나게 튀는 요소라기보다, 미학과 예술의 근본을 구성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부조와 희극적인 것과 끔찍스러운 것, 지나침과 과장, 비정상성 등을 주요사항들로 규정하였다. 필립툼슨은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의 작품과 반응 속에서 해결이 안 된 충돌’로 정의 하였다. 또한 “신체적 그로테스크는 비정상적인 것과 강한 친화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¹⁵⁾ 그로테스크는 삶의 환경과 사회적 요건에 따라 예술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풍요로운 근원이 된다. 그리고 블랙유머black humour¹⁶⁾를 가미해서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우스꽝스럽거나 b급 예술처럼 가볍게 풀어어나가는 재치를 선보였으며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 되고자 한 작가 의식 또한 분명해지고 있었다.

뒤로는 연구자의 작품을 위주로 제작방식과 의도에 대해 서술하였다.

14) 그리스 신화를 원용하여 유럽 예술 경향을 분류하는 경우에 쓰이는 개념이다. 니체는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아폴론적인 것을 서로 환원될 수 없는 예술의 두 가지 근본 범주로 설정하고 모든 예술을 하나의 유일한 원리 속으로 끌어들이는 데 반대하면서 비판적으로 이 개념을 사용한다. 의식적으로 분별하는 주관적인 능력이 아폴론적인 것이라면, 주관의 도취의 상태로 고양되어 몰아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디오니소스적인 것이다.

15) 필립툼슨, 김영무 옮김, 「그로테스크」, 서울대 출판부

16) 명량한 웃음을 자아내는 유머에 대해, 사람을 웃기면서도 인간존재의 불안·불확실성을 날카로이 느끼게 하는 것으로, 유머에는 인간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에 있지만, 블랙유머에는 오히려 인간에 대한 불신·절망이 숨어 있다. 「네이버지식백과」

3.작품분석

연구자는 무의식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내면의 흐름을 매순간 감정적으로 기억하고 이를 표현해 내는 방법을 고사(考査)하고 있다. 인간은 행복을 유지하는 것 보단 고통을 감내하는 에너지가 더욱 강하다. 이것을 연구자는‘나를 움직이게 하는 무엇’이라는 인간의 근원적 에너지에 대한 연구로 이어나가고 있으며 감정적 표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즉흥성과 우연성에 직결시켰으며 해체와 재결합을 통하여 어떤 구체적인 형상을 일부 은폐시켰다. 그를 위해 가변적 재료의 특성을 살린 라텍스(텐션)와 아이소핑크(쫄라툼)와 우레탄폼(부풀려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재료들을 하나씩 이용해서 작품을 이어나갔으며 첫 개인전에서는 세 가지 재료가 종합된 설치작업으로 [작품1]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내면의 폭력성이나 성욕, 죽음과 같은 심리적 갈등 속에서 이어지는 긴장감을 이용하였고 내면의 본능으로부터 촉발된 카오스적 공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후 세 가지 재료의 특성과 감정적 요소를 세분화 시켜서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석사학위 청구전에 적용시켰다. [작품2.3]에서 부조로 시작된 아이소핑크작업을 [작품4]로 이어서 인간의 나약함과 공허함을 표현하였으며 [작품5.6.7]은 부풀려짐과 절제를 통하여 욕동의 부산물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회화를 통하여 구체화시킬 수 없는 감정의 흐름을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하였고 라텍스를 이용한 자화상 시리즈는 다양한 감정에 의하여 완전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연구자는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에 근본적인 이유를 찾고 또한 자신에 대한 성찰로 작업을 이어가고자 하였으며 불편했던 감정들을 곱씹고 이유를 찾는데 연구를 하였다.



【작품1】 나를 움직이게 하는 무엇

【작품1】 나를 움직이게 하는 무엇

연도 : 2015

크기 : 가변크기

재료 : 우레탄폼, 라텍스, 아이소핑크

제작방법

1. 반생이로 모양에 맞춰 용접을 하면서 뼈대를 만든다.
2. 용접 후 빈 공간은 테이프로 채운다.
3. 뼈대 위에 우레탄 폼으로 덮는다.
4. 우레탄 폼 위에 컬러링을 한다.
5. 액체상태의 라텍스를 조색하여 다양한 색들을 만든 후 비닐 바닥에 뿌려 놓는다.
6. 1~2일이 지나면서 고무가 된 라텍스를 떼어낸 후 양끝을 고정시키면서 전시장을 채워 나간다.

작품설명.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촉발된 카오스적 공간을 만들었다. 붉은 색의 우레탄폼과 진득한 느낌을 주는 라텍스는 마치 인체 내부의 느낌을 자아낸다. 이것은 곧 무의식속의 성욕과 폭력성이 긴장의 연속선상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고 터질 것 같은 불완전한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첫 개인전에 발표했던 설치작품으로 공간 속에는 부풀려진 우레탄폼과 라텍스의 텐션이 주를 이루고 있고 성욕과 폭력성이 긴장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구체적인 형상보단 디오니소스적인 감정의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인간의 행위를 내적 동인의 부산물로 작업에 임했다.



【작품2.3】 나를 이끌어 주는 무엇I,II

【작품2.3】 나를 이끌어 주는 무엇I,II

연도 : 2015

크기 : 100x190x16cm

재료 : 아이소핑크

제작방법

1. 160mm 두께의 아이소핑크 원장 위에 밑그림을 그린다.
2. 부조와 같은 느낌으로 조각을 한다.
3. 열을 가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바탕으로 아이소핑크에 칼집을 내어준다.
4. 사포질을 해서 깔끔한 표면 처리를 한다.
5. 아이소핑크에 전체적인 열을 가한다.
6. 액체상태의 라텍스를 조색하여 다양한 색들을 덧바른다.

작품설명.

유럽여행 중 60만구의 해골이 쌓인 길을 걸었을 때 받은 충격은 삶과 죽음에 대한 혼란으로 이어졌으며 살아가던 방식에 대한 무의미함과 공허함을 극도로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는 중 공사현장에서 버려진 아이소핑크를 주워왔고, 그것을 다루는 과정에서 열을 가했을 때 무차별적으로 부피가 줄어드는 점에 흥미를 느꼈으며 이것을 인간심리에 반영 하였다. 그 후 작업방식에 아이소핑크와 열풍기로 우연성에서 묻어나오는 그로테스크한 작품을 집중 실험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자는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가 나오는 것을 피해갔지만 해골만큼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아닌 피부 속의 그 자체이기에 몇 번이고 만들어 냈던 것이다.



【작품4】 레테의 강을 건너지 못한 자

【작품4】 레테의 강을 건너지 못한 자

연도 : 2016

크기 : 가변크기

재료 : 아이소핑크, 우레탄폼

제작방법

1. 인체 골격에 맞춰서 아이소핑크를 깎는다.
2. 사포질을해서 표면을 다듬는다.
3. 열풍기로 전체적인 열을 가한다.
4. 뿔조각들을 하나씩 낚싯줄에 연결을 한다.
5. 뿔조각들을 원하는 동세에 맞춰서 하나씩 천장에 매달아 고정시킨다.

작품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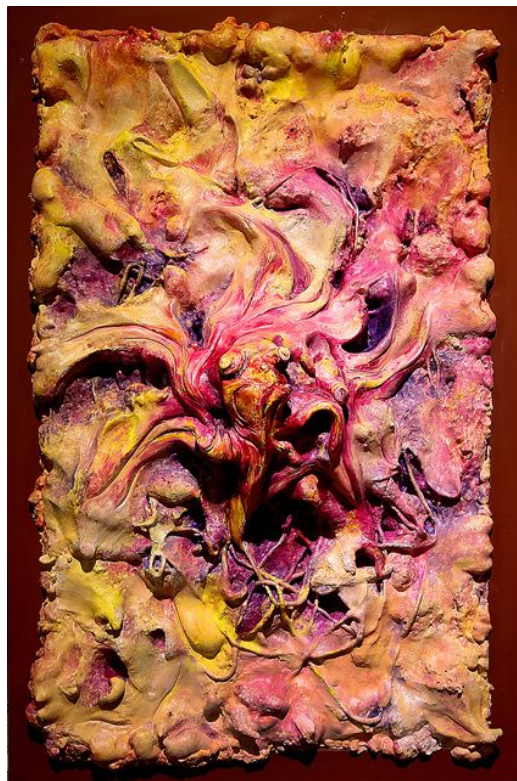
60만구의 해골과 마주했던 곳은 파리에 위치한 카타콤베스catacombes로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관광지였다. 하지만 흙으로 돌아가야 할 수많은 백골들이 첩첩산중으로 쌓여서 전리품이 되어 있는 양면성은 피하기 어려웠고 산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율배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연구자는 백골들을 보는 내내 불편한 마음이 가지질 않았고 숨 막히게 쌓여 있던 백골들을 생각하며 이와 같은 작업을 진행 하였다.

지면에서 발끝이 살짝 닿은 한 구의 해골의 머리끝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어설피 보이면서도 완전체의 조건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일부 뿔조각들은 십자가 모양을 하면서 또 하나의 형상을 이루고 있다. 이는 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후의 세계로 소멸하는 하나의 과정을 표현 하였으며 십자모양의 뿔조각과 검은 무덤은 죽어서도 편치 못했던 모습들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함이 있다.



【작품5.6】 옥동의 부산물I,II



【작품5.6】 옥동의 부산물1,II

연도 : 2016

크기 : 62x40cm, 40x62cm

재료 : 아이소핑크, 우레탄폼

제작방법

1. 사각 프레임 안에 헤골모양의 밑그림을 그린다.
2. 그 위에 우레탄 폼을 쓴다.
3. 자연스럽게 부풀려진 우레탄폼위에 시바틀로 직조하면서 다듬어간다.
4. 컬러링을 한다.
5. 마감제를 바른다.

작품설명.

다소 기괴하면서 인체 속 장기의 한 부분으로 느껴지는 우레탄 폼의 작품들은 유기적 집합체로서 구체적인 형상을 유도하지는 않았다. 재료적 특성을 이용하여 부풀려지는 과정에서 형상들은 점차 왜곡되고 양감만 남는다. 이러한 우연적인 효과를 조형미에 가미시키면서 좀처럼 알 수 없는 내면의 흐름과 무의식에 대한 불분명한 형상을 표현시키는데 집중을 했으며 단단하지 못한 내면과 가변적인 심리작용을 표현 하였다.



【작품7】 옥동의 부산물Ⅲ

【작품7】 육동의 부산물Ⅲ

연도 : 2016

크기 : 38x28x15cm

재료 : 아이소핑크, 우레탄폼

제작방법

1. 사각 프레임 안에 우레탄 폼을 쏘아놓는다.
2. 자연스럽게 부풀려진 우레탄폼위에 시바틀로 직조하면서 다듬어간다.
3. 라텍스로 적당한 위치에 맞춰서 감아 고정한다.
4. 컬러링을 한다.
5. 마감제를 바른다.

작품설명.

【작품5.6】 과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졌지만 절제를 통하여 비어있는 공간과 색의 통일로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의 차이를 주었다. 그리고 추가적인 방법에서 라텍스가 부조물위에 한 번씩 감고 당기기를 반복하면서 무의식의 억압과 텐션에서 오는 긴장감을 보여주었다.



【작품8】 공(空)과 욕동의 이율배반적인 관계

【작품8】 공(空)과 욕동의 이율배반적인 관계

연도 : 2016

크기 : 가변크기

재료 : 라텍스, 각 파이프

제작방법

1. 사각 프레임에 맞춰 검은색으로 제조된 라텍스를 붓는다.
2. 라텍스위에 사각 프레임을 올린다.
3. 프레임을 뒤집어서 다 마른 라텍스를 벗겨낸다.
3. 원하는 지점까지 벗겨낸 후 더 이상 벗겨지지 않게 핀을 박아 고정시킨다.
4. 바닥에 라텍스를 당겨 고정시킨다.

작품설명.

무의식에 자리 잡은 여러 가지 욕동을 라텍스의 텐션을 이용해서 표현하였고 벗겨졌을 때 드러난 빈 프레임은 空(공)을 표현한 작품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에는 허무함과 덧없음이 항상 공존하고 있음을 말하고자 하였다.



【작품9】 간극의 부산물

【작품9】 간극의 부산물

연도 : 2016

크기 : 가변크기

재료 : 라텍스, 아이소핑크, 우레탄폼, oil painting

제작방법

1. 1회 개인전에서 사용했던 라텍스를 뭉쳐서 천장에 매단다.
2. 아이소핑크를 얇게 조각한 뒤 열풍기로 열을 가한다.
3. 우레탄폼을 쏘아서 굳힌다.
4. 컬러링을 한다.
5. 아이소핑크 원장을 일률적으로 자른 후 쌓아올리면서 라텍스로 접착시킨다.
6. 롤 상태의 캔버스위에 다양한 painting을 한다.
7. 다 마르면 그림 사이즈에 맞춰서 제단을 한다.

작품설명.

1회 개인전에서 선보였던 라텍스의 텐션을 역 이용한 작업이다. 1회 개인전에서 설치된 라텍스를 다시 거두어서 축 늘어진 형태로 재구성하였고 첫 전시에서 느꼈던 상실감과 무기력함을 석사 학위 청구전에 접목 시켰다. 그로부터 파생된 우레탄폼 자소상과 드로잉들이 라텍스 뭉치와 같이 발표된 설치 작업이다.



【작품10】 부산물의 부산물

【작품10】 부산물의 부산물

연도 : 2016

크기 : 70x120cm

재료 : 라텍스

제작방법

1. 프레임 위에 라텍스를 당겨 고정시키면서 반복한다.
2. 여러색의 액체 라텍스를 뿌리면서 뒤섞는다.
3. 다 마르면 투명에폭시를 전체적으로 바른다.
4. 에폭시가 다 굳으면 투명라텍스를 전체적으로 바른다.
5. 투명라텍스가 마르면 조금씩 벗겨낸다.

작품설명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감정이 뒤바뀐다. 사랑, 슬픔, 분노, 행복, 성욕 등이 하루에도 몇 번씩은 중첩되고 사라졌다가도 다시 발산하는 불완전한 인간임이 틀림없다.

연구자는 불완전한 인간의 감정을 보여주는 작업으로 라텍스를 하나하나씩 잡아당긴 후 고정시키면서 텐션의 긴장감과 당기는 힘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사람의 얼굴이 약간은 드러나게 의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작품 전체에 투명라텍스를 붓고 뜯어내는 과정을 통해 내적동인의 부산물에서 나온 또 다른 부산물의 개념으로 연구자의 작업의식을 다시 한번 고찰하였다.



【작품11.12.13】 자화상I,II,III



【작품11.12.13】 자화상I,II,III

연도 : 2016

크기 : 70x120cm, 70x110cm, 60x90cm

재료 : 라텍스

제작방법

1. 액체상태의 라텍스를 계획에 맞춰 프레임 위에 일정부분 뿌려놓는다.
2. 프레임 위에 라텍스를 닿겨 고정시키면서 반복한다.
3. 투명에폭시를 전체적으로 발라 고정시킨다.

작품설명.

인간의 핏줄과 살점들을 연상케 하는 이 작업은 라텍스를 반복적으로 하나하나씩 닿겨서 고정시키는 끝에 사람의 얼굴이 조금씩 드러나게 하는 의도가 있다.

연구자는 인간의 불완전한 감정의 연속선상에서 오는 구체적이지 못한 형상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라텍스의 긴장감과 여러 색들을 다양한 감정으로 비유시켜 표현하였다.



【작품14.15】 포장I,II

【작품14.15】 포장I,II

연도 : 2016

크기 : 70x120cm, 120x70cm

재료 : 라텍스

제작방법

1. 프레임 위에 라텍스를 당겨 고정시키면서 반복한다.
2. 투명에폭시를 전체적으로 발라 고정시킨다.

작품설명.

반복적으로 라텍스를 당겨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오는 긴장감과 쾌감으로 시작하였으며 프레임 전체를 뒤덮고 나서야 작업이 끝난다.

겉으로 표출되기 힘든 내면의 압박감을 프레임을 통해 절제시키며 표현하였고 어떤 사물을 포장했다는 개념보단 무의식에 욕동의 감정들이 감싸져있는 포장으로 이야기 하고자 하였다.



【작품16】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무엇

【작품16】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무엇

연도 : 2014

크기 : 가변크기

재료 : frp

제작방법

1. 흙으로 형태를 만든다.
2. 석고로 틀을 만든다.
3. 석고 틀을 떼어낸 후 frp를 붓고 석고 틀을 붙인다.
4. frp가 다 굳으면 석고를 떼어낸 후 사포질을 한다.
5. 컬러링을 한 뒤 마감제를 바른다.

작품설명.

우레탄폼으로 작업을 시작하기 직전에 했던 작품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작품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체적인 형상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시작되었으며 대부분을 생략시키고 왜곡시켰다. 크게 남아있는 것은 전방에 보이는 사람의 항문 같기도 한 주름덩어리로 사람의 입을 비유하고 있으며 결과 속이 다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내포하는 형상을 표현 하고자 하였다.

Ⅲ. 결 론

본 논문의 1장 작품의 형성배경에서 연구자가 고민하고 있는 미술에 대한 이해와 작품 활동 방식에 대한 방향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자아주체성의 확립을 시도 하였고 무의식에 대한 고찰로 이어졌다. 무의식에서 이해 할 수 없는 자신의 행동들을 관찰 했을 때 다양한 욕동의 에너지가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프로이트의 심리학적 견해를 인용하였으며, 연구자가 지금까지 고민하면서 좀처럼 잡히지 않던 무의식의 어떠한 개념을 정리시켜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2장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에서는 이드Id, 초자아Superego, 자아Ego의 개념을 살펴보았고 빙산에 비유해서 설명했던 프로이트는 수면아래 잠겨 있는 이드의 개념에 중요성을 두었다. 연구자 역시 이드에 관한 연구에 집중을 높였으며 그 속에는 삶의 욕동과 죽음의 욕동이 공존하고 있었고 인간이 행동 하게 되는 내적동인이 무의식에서 파생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장에서는 19~20세기에 있어 카메라의 등장과 기술의 발전은 문화적 전복(顛覆)을 야기 시키고 인간사상의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로 인한 미술계는 재현미술이나 상징화를 시키는 권위적인 미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작가 개인의 사유를 담을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1.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문화적 파괴 등을 지켜본 작가들은 작품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줬고 인간의 파괴성과 잔혹함 그리고 비도덕성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 형상을 왜곡하며 기괴적인 장르를 선택한 그로테스크적 표현의 작가들과 내면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앞서 선행 작가로 연구했던 폴케르트 드용과 지슬라브 백진스키는 미적 한계

를 뛰어넘는 전위적인 작품들로 미술계에 ‘날’것을 선사했고 블랙유머와 심연으로 부터의 그로테스크를 보여주었다.

연구자는 구체적인 형상과 현실의 객관적 재현에 반대하였고, 다양한 형식을 통해 주관적 의식과 심리적 효과를 창조 하는데 집중을 하였다. 또한 내면의 흐름 속에서 좀처럼 잡히지 않는 불분명한 형상을 표현하기위에 애를 썼다. 그래서 작업의 방식도 크게 바뀌기 시작하였으며 손끝에서 묻어나오는 인위적인 형상보다는 재료적 특성에서 쪼그라들고 부풀어 오르거나 텐션이 주는 우연성과 다의성에 기반을 두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표현방식의 한계에 바로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테크니컬한 방식과 물성의 내구성에 대한 한계인지 작품을 대하는 태도의 한계인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수년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고민이며 전시를 통해 더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이것은 작가로서 평생 안고 가야할 숙제인 것 같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이정우 「주체란 무엇인가」, 그린비 2009
- 이철호 「에로티시즘의 미학」, 선비출판사 1988
- 정도연 「프로이트의 의자」, 응진 지식하우스 2009
- 진중권 「미학 오디세이」, 휴머니스트 1994
- 필립 톰슨, 김영무 옮김 「그로테스크」, 서울대출판부 1986

<홈페이지 및 기타>

네이버 지식백과

- 「지그문트 프로이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그로테스크」, 「yBa」, 「디오니소스와 아폴론」, 「블랙유머」

홈페이지

-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South Korea

<http://southkorea-kr.nlembassy.org/news>

<도판 참고>

-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mystery&wr_id=17509
- http://www.saatchigallery.com/artists/folkert_dejong.htm

ABSTRACT

Study on ambiguous shapes inherent in the unconscious

- On the basis of my work -

AN, min-hwan

Dept. of Plastic Art

Graduated School of Plastic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Humans become to experience their own feeling which is not systematic, concrete in a great number of situations to live on. People do unknown behaviors unwittingly sometimes such like own feeling becomes good unexpectedly, unbearable anger is soured owing to trifles, or sudden depression is made suddenly etc. This means that ego of humans as subject is in unstable state, and has inner side that cannot be controled in person. If the degrees of these serious situations are deepened, it would be connected to mental illnesses like depression, bipolar disorder, violence, and could make fatal situations ultimately. Above contents attempt to state a fact that starting point of humans' major motivations is made from unconsciousness, even though humans seem to always live at the edge of consciousness with feeling that is potential to unconsciousness. Research did a consideration about

where unexpected actions adversely come from by restraining streams of various inner sides, and tried to make it into a subject called 'Something to let me move', and then attempted to express the subject through work.

This thesis was announced before applying Master degree centering on work having been progressed from 2015 to March 2016, and aimed at exposing the process of expressing divulged by-products outwardly regarding inner stream and internal motivation.

In Introduction, Chapter 1, work directions and purposes were described.

In Main Subject, Chapter 2; First, the process of becoming a turning point of expression and a way of thinking were described after feeling thirst about fine arts having been oriented by researcher through consideration on arts that has been kept ordinarily in relation with forming background of work. Second, the theory on hidden human nature was researched based on psychoanalysis of Sigmund Freud. Third, consciousness changes of artists in modern art and preceding writers who expressed inner conflicts were researched. Based on such results, this study analyzed attitudes of expressing formative characteristics that were come from materials having weak properties by centering on researcher's work, and gave a description on producing methods.

In Conclusion, Chapter 3, contents of this study were arranged, and also future work directions were suggested.